

# 공항 이전 시·도 갈등 최악...코로나에 지역경제 휘청

## 가장까지 파고든 코로나...안전지대 없다

광주·전남에서 지난 2월 초 코로나 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 광주와 전남의 누적 확진자는 1000명을 훌쩍 넘어섰다. 전국 누적 확진자도 6만명에 육박한다. 사태 초기 국의 감염 사례가 많았으나 현재는 지역 감염 사례가 절대다수다. 감염 장소도 식당, 술집, 헬스클럽, 종교시설부터 가장 안전해야 할 병원과 가정에 이르기까지 안전지대가 없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백신 공급을 예고했지만, 기대대로 코로나 19가 종식된다 해도 빈사 직전에 내몰린 국가 및 지역 경제 회복이라는 과제를 풀어야 한다.



지난 8월 8일 구례군 구례읍 주택가가 침수돼 있다. 500mm 이상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제방이 붕괴되고, 섬진강이 범람해 구례읍이 수중도시가 됐다.

## 사흘간 '600mm 물폭탄' 최악의 물난리

지난 8월 광주·전남에는 사흘간 6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며 수천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최악의 물난리를 겪었다. 전남에서는 공공·민간 부문을 합쳐 2500억 원에 육박하는 재산피해가 났으며, 광주의 피해 규모도 1000억 원에 달한다.

특히 섬진강 하류 지역의 피해가 컸다. 구례에서만 1903억 원의 재산피해가 집계됐으며, 곡성군도 403억 원의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 수해로 인한 인명 피해는 사망 13명(광주 2명·전남 11명), 실종 1명(광주 1명)으로 집계됐다.



광주 군 공항 소음영향도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군 항공기가 비행훈련을 하고 있다. 소음 영향도 조사에는 지자체가 추천하는 주민대표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해 이착륙대 발생하는 소음을 측정한다.

## 전두환 23년만에 유죄, 5·18헬기사격 재입증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비난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980년 5월 광주에서의 헬기 사격의 존재를 인정한 첫 법원 판단으로, 전씨는 23년 만에 다시 5·18 민주화운동 관련 형사 재판에서 징역형(집행유예)을 받은 것이다. 광주 상공에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점에서 전씨 측의 자위권의 논리도 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등 지역사회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대세였지만, 일각에서는 전씨의 형량에 대해 아쉬움을 표출했다.



전두환씨가 부인 이순자씨와 함께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전씨는 고(故) 조비오 신부를 회고록에서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 4·15총선 민주당 압승...24년만에 전 지역구 석권

올해 정치권은 더불어민주당의 4·15총선 압승으로 180석에 달하는 거대 여당이 탄생하는 등 정치지형 변화가 컸다.

민주당은 이를 토대로 검찰 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에 힘을 쏟았고, 공정경제3법 등을 탄생시켰다. 광주·전남 정치권도 18석을 민주당이 모두 차지했다. '민주당 열풍'으로 호남을 대표했던 중진 정치인들은 퇴장했으며, 신인들의 여의도 입성이 잇따랐다.



광주 백운고가 1989년 11월 왕복 4차로 규모로 개통된 이후 31년만에 철거됐다.

## 5·18 40주년 '오월 3법' 통과...통합의 길로

'5·18 3법' (민주화운동 특별법·진상규명 특별법·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법)이 국회로 통과됐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 규명과 왜곡 행위 처벌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오월 3법'은 광주지역 사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만큼, 국회 통과에 대한 광주 시민 사회의 환영의 목소리는 컸다.

오월 3법의 국회 통과는 40주년을 맞는 5·18의 진상 규명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더불어 5·18에 대한 왜곡·편향 방지의 계기가 돼야 한다는 지역민들의 간절함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역사 정의 구현의 가치도 갖는다.

## 광주시·전남도 행정통합 로드맵 제시

지난 11월 2일 이용섭 광주시장의 제안에 김영록 전남지사가 호응하면서, 광주·전남은 미래세대가 거대 수도권과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중대 합의를 했다. 1986년 11월 광주의 직할시 승격으로 분리된 광주시와 전남도를 행정통합하는 것으로, 용역 1년, 검토 6개월을 거친 뒤 공론화위원회를 함께 구성해 통합 여부와 방식 등을 결정하는 로드맵이 제시됐다.

양 사·도의 이번 결단은 비대해진 수도권에 대응해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 타 지역에서 이미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위기감도 한 몫을 했다.

## 백운고가 31년만에 철거...도시철도 2호선 본격화

지난 1989년 11월, 길이 385.8m·폭 15.5m에 왕복 4차로 규모로 개통된 이후 31년간 남구의 관문 역할을 해온 백운고가 철거됐다. 백운고가는 안전문제와 도시 경관 훼손, 주변 상권 침해 문제로 철거 요구가 커지면서 도시철도 2호선 사업과 병행해 철거됐다.

광주시는 지난 6월부터 각종 중장비 800여 대를 투입해 교각 등 상부 구조물, 양벽 등을 철거했다. 백운고가 철거와 함께 진행된 도시철도 2호선 공사도 본격화되면서 올해 계획 공정률(16%)을 조기 달성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 광주 자치구간 경계조정 본격화...광산구 반발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10월 자치구간 경계조정을 꺼내들었다. 시는 2018년 말 활동을 중단했던 기획단을 재가동해 경계조정 방안을 재검토하고 있다.

최근 10만명을 회복한 동구 인구가 북구의 4분의 1에도 못 미칠 만큼 심한 인구편차와 기형적 선거구 등을 바로 잡으려는 시도다. 광주에선 2011년 10월 1일 동구 산수 1·2동이 북구로, 북구 풍향동 일부 등을 동구로 편입한 게 마지막 경계조정이다. 다만 광산구의 거센 반발은 해결 과제로 꼽힌다.

## 첫 발 내디딘 민선체육회 폭력·갑질 부끄러운 민낯

광주·전남 체육계는 올해 민선체육회장 시대를 맞이했다. 체육인들의 선거로 뽑힌 김창준 광주시체육회장과 김재무 전남도체육회장을 비롯한 광주·전남지역 시·군·구 체육회장이 지난 1월부터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하지만, 일부 지역 체육회장들이 각종 폭력과 갑질로 물의를 빚으면서 체육인과 시·도민들의 개혁요구에 직면했다.

선거 과정에서 지지 단체장 임명설 등이 불거지거나 불공정 시비가 일었고 이에 따라 선거를 선관위에 위탁해 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후보자의 자질 검증 체계 보강과 체육회 내부의 비민주적인 운영행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 광주시 시도 상생발전위 합의 파기에 전남도 반발

광주·전남·민간공항 이전을 둘러싸고 광주시와 전남도의 갈등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무안국제공항 육성을 위해 2021년까지 광주공항을 무안으로 이전·통합하기로 합의하고, 군공항의 경우 이전지역 주민이 수용 가능한 방법을 찾는 데 시·도가 협력한다는 2018년 민선 7기 첫 시도 상생발전위원회 합의 사항을 광주시가 사실상 파기하면서다. 광주시가 12월 9일 시민여론조사 결과(시민 80% 군공항과 민간공항 이전 연계)를 내세우며 "군공항 해결 후 민간공항 이전" 입장을 내놓자 전남도와 도의회는 "광주시가 합의를 깬다, 민간공항 이전과 군공항 문제는 별개"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7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한번쯤 생각해 보세요!

- ☑ 허리, 엉덩이, 다리까지 아프고 저리며 통증이 있다면... **허리디스크?**
- ☑ 목을 돌려서 어깨가 아프다... **목디스크?**
- ☑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무릎이 자주 붓는다면... **퇴행성 관절염?**
- ☑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 어려워진다... **회전근개파열?**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능!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